社 說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수익나눔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은 지난 27일 수익나눔을 위한 수익나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름다운가게 본부에서 배정받는 2천만원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어떻게 나누어줄까하는 심의했다. 포천점은 올 2월23일 개점한 이후 10개월이 됐다. 지난 9월까지 5천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2천원 혹은 3천원, 1만원 하는 헌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다.

판매금액은 전액 아름다운가게 본부에 입금했고 본부에서는 경비 등을 제외하고 수익금을 해당 지점에 돌려준다. 포천점은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수도권 11개점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이처럼 포천점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유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천점이 오픈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6천여만원의 씨앗자금과 점포와 창고의 무상 임대 덕분이다.

봉사는 봉사를 해 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포천점 오픈에 공헌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 포천시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다. 포천로타리클럽 회원과 라이온스클럽회원, 그리고 봉사단체, 기업인 등이다.

또한 포천시청 공무원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사, 포천경찰서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이라는 행사를 통해 포천점은 시민들 마음속에 자리잡게 됐다.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나 일동주민자치센터가 마련한 일동오뚜기 축제때 아름다운가게를 현장에서 열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축제현장이나 기획 이벤트를 통해 순환과 나눔이라는 아름다운가게는 점차 포천시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거듭나게 됐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의 자랑은 활동천사 20여명이 활동을 하고있다는 점이다. 활동천사들은 매주 매주 4시간 혹은 5시간씩 포천점에서 아무런 댓가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포천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60%정도는 아름다운가게 본부나 수도권지역에서 보내 온 것들이다. 포천시민들의 물품기증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아름다운가게 오픈 근본취지는 각 지역에서 기증한 헌 물건을 수선해 판매하고 수익금을 다시 나누는 것이다. 포천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중 지역에서 순환하는 것은 40%에 불과하다. 차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점이 있어 보인다. 포천점의 판매건수는 매월 2천여건이지만 대부분 단골고객이 많다. 아름다운가게를 이용하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포천동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소흘읍이나 농촌지역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시기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춥게 느껴지고 있다. 요즘 포천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담궈주고 연탄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많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을 찾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시민들은 작은 정성이 필요한 시기다. 남이 아닌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 훈 :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 행 인 최호열
편 집 국 (031)542-1506	편집국장 김영복
광고접수 (031)542-9888	인 쇄 인 김규석
구독신청 (031)542-9889	
F A 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친근하고 믿음직한 경찰의 이미지 제고

포천경찰서, 고객서비스 실천 위한 무궁화포럼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11월23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서비스 실천을 위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무궁화포럼은 업무유공자 표창수여, 경찰서장 훈시, 각 기능별 현안사항 토론, 교보생명 이숙영 CS Consultant의 강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특별강연에서는 경찰의 비전 달성을 위한 고객서비스 실천을 위해 고객만족의 이해, 고객서비스 실천, 서비스다짐 등에 대해 언급했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친근하고 믿음직한 경찰의 이미지를 주민들에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교통조사계 경사 배경진, 신북파출소 경사 양영석에 대해 신속한 뺑소니범 검거 및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포천경찰서는 11월23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서비스 실천을 위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아름답고 안전한 교통문화 캠페인

포천경찰서 교통사고 예방 위해 거리 홍보

포천경찰서는 11월27일 오전7시30분 포천시 신읍동 강병원사거리 및 각 지구대(파출소)별 주요교차로에서 경찰관 60명, 모범운전자회 20명, 녹색어머니회 10명,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11월27일 오전7시30분 포천시 신읍동 강병원사거리 및 각 지구대(파출소)별 주요교차로에서 경찰관 60명, 모범운전자회 20명, 녹색어머니회 10명,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경비교통과장은 추운 날씨에도 캠페인에 참석한 경찰관, 모범, 녹색, 경기도교통연수원 등 노고를 치하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한 홍보물(전단지, 자)등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자며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원칼럼 누구를 위한 안보시설인가?

이 병 옥
포천시의회 의원)

환영 오염 사고, 전투기 소음, 밤낮없이 쏘아대는 포성, 탱크이동에 따른 진동 문제 등이 군사보호구역이라는 명목아래 저질러지고 있다.

특히 포천지역에는 미군 사격장 등 8개의 사격장이 있어 매향리와 같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군이 주둔하는 동두천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피해를 보는 사격장 인근 지역은 제외되고 있다.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50여년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고통 받는 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통을 감내만 해온 우리지역이 영원히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포천시의 면적은 서울시의 1.4배(826.4㎢)이며 이중 군사보호구역이 35%(324㎢)로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고 있다.

미8군 종합사격장 420만평(창수면·영중면·영북면 소재), 창수면 소재의 자주포사격장·폭파 훈련장·랩탄 사격장, 영북면 소재의 승진 훈련장(610만평)·소총 사격장, 이동면소재의 원평사격장·광산골사격장이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포진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격장과 훈련장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서 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정책적 배려가 없었으므로 포천시의회에서는 과도한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고자 2004.12.21일『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년 12.23일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장등 7개 기관에 송부하였으며, 동년 12.27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장관등 11개 기관에 15개항에 대하여 정책반영을 건의하였다.

그동안 국가가 취한 행동을 보면 화성시 매향리에 있는 사격장을 군산시 직도로 옮길 때 그 지역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3천억을 지원했으며 평택지역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한다고 결정 했을 때는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2012년까지 18조8천억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반면 포천의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시의 약1/3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480만평이 수몰되는 홍수조절용 댐 건설 예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국가균형발전법상 기업이전지역으로도 정해져 있다. 2단계 국가 균형 발전 안 지역분류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덜한 정체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분류함으로서 기업 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악화, 지역 발전 둔화 등이 포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원평사격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존 사격장에서 민가 주변으로 500미터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평 미군사격장내에서는 의정부에 주둔해 있던 캠프 홀링워터 기지를 위한 건물까지도 확장해서 짓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지역은 사실상 사격장 존속에 따른 피해만 가중될 뿐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정호수 리조트 사업, 전철유치 사업, 신도시건설 사업등『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서 대형 사업들이 무산 될 지경에 이르렀다.

포천시의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2월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부대와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를 조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포천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이러한 것들이 관철될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자유기고

직언(直言)을 바라는 정직(正直)한 후보는

이 중 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유머는 우리가 사회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아름다운 옷이라 했다.

미국 16대대통령 링컨은 대통령이면서도 보통사람같이 평범하게 지내는 시간을 즐겼다. 집무시간을 마치면 사저로 돌아가서 구두를 손수 닦기도 하고 양말과 손수건등을 빨기도 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링컨대통령은 대단한 공처가였다는 사실이다.

링컨대통령 부인 메리는 남편인 링컨에게 이놈, 저놈은 보통이였다. 하루는 빗자루로 링컨을 때리려고 덤벼들자 링컨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 부인이 큰소리로 욕을 하며 따라오니 백악관 밖으로 도망치며 하는 말이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국민들이 보지 않소, 내가 잘못 했으니 참으시오"하며 애걸한다.

이 정도로 부인을 두려워하는 공처가였다. 그러나 그것은 링컨이 못나서가 아니라 "집안일도 참아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 일을 맡아보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였다.

어느 날은 비서가 빨래를 하는 링컨을 보고 말했다.

"각하, 어찌 귀하신분이 이런 천한 일을 손수 하십니까, 가정부에게 시키시지요?" 링컨이 대답한다. "세상에는 천한 일도 천한 사람도 따로 없다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일을 내가 하는 것인데 어째서 이런 일을 천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라고 오히려 비서를 타일렀다.

링컨의 이러한 평등의식이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하였고, 오늘날 미국국민에게도 평범한 시민정신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미국은 대통령의 아들이나 노동자의 아들이나 똑같이 군대에 나가 차별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같이 싸우다가, 같이 살고, 같이 전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대는 강한 군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위층의 아들들은 병자와 장애인이 많은가 보다, 고위층아들의 군입대 비율은 일반서민의 아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일화도 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친구들이 모여 앉아 링컨과 대결하는 더글러스와의 인물됨을 비교 분석하고 있었다. 마침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링컨에게 친구들이 묻는다.

"자네는 보통사람보다 키가 유난히 큰 편이고 더글러스는 반대로 유별나게 작은 편인데 사람의 키는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링컨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변했다. "글쎄, 사람의 키는 다리의 길고 짧음에 달려있고, 다리의 길이는 땅에서부터 몸통까지 닿을 만큼만 길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의 크기는 키가 아니라 정직의 크기로 재야 한다네"하니 모두가 감동하고 즐거워하였다.

링컨은 이러한 유머로서 키가 큰 자기자랑도 하지 않았고 키가 작은 더글러스를 헐뜯지도 않는 지혜와 유머가 있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어떠한가.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헐뜯는다. 정책은 없고 ,바람직한 능력공방도 없이 오로지 이 나라 정치권은, 사기전과자 김경준의 입만 쳐다본다. 한심하다.

그러면서도 링컨은 직언(直言) 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고, 아첨배와 간교한 자들을 멀리했다. 그리고 링컨은 정직(正直)했다. 미국국민들은 이러한 링컨을 좋아하고 사랑했다.

직언(直言)을 좋아하는 정직(正直)한 후보는 누구인가.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1월 20일 ~ 11월 2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7.11.20 포천신문 제395호 발행
2007.11.30 포천신문 제396호 발행
2007.12.10 포천신문 제397호 발행예정